

『설인귀전』의 번역, 번안 양상 연구

김예령*

서론

한국에서 『설인귀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1971년에 발표된 서대석의 「李朝翻案小説考-薛仁貴傳을 中心하여」¹⁾를 서두로 하여, 「여결소설과 ‘설인귀전」²⁾이 연구되었고, 80년대에 이르러 「설인귀 고사연구」³⁾, 「‘설인귀전’고」⁴⁾, 「‘설인귀전’ 異本考」⁵⁾, 「군담소설과 ‘설인귀전」⁶⁾등의 연구논문들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90년대에 이르러 「설인귀전」⁷⁾과 「‘설인귀전’의 ‘설인귀정동’수용과 그 의미」⁸⁾ 라는 두 편의 논문이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십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설인귀전』에 대하여 기존 연구 외에는 다른 연구성과가 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학계의 연구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많은 이본들을 가지고 있는 『설인귀전』의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번안본에 대해서 그 변모양상을 위

* 중앙민족대학교 교수

- 1) 서대석, 「李朝小説翻案考-薛仁貴傳을 中心하여」, 『국어국문학』 52집, 국어국문학회, 1971.
- 2) 성현경, 「여결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집, 1974.
- 3) 장충량, 「설인귀고사연구」, 국립대만사범대학국문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82.
- 4) 이윤석, 「‘설인귀전’고」, 『국문학연구』 제7집, 효성여대 국문학과, 1983.
- 5) 이윤석, 「‘설인귀전’ 異本考」, 『효성여자대학교논문집』 27, 효성여대, 1983.
- 6) 서대석, 「군담소설과 ‘설인귀전」,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 7) 이윤석, 「설인귀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 8) 이금재, 「‘설인귀전’의 ‘설인귀정동’수용과 그 의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90.

주로 대비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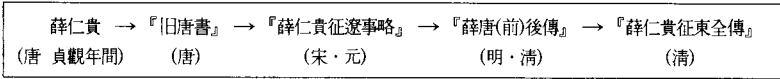
번역본, 번안본 소설이라 할 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원본문제이다. 그런데 시대적 제한성과 역사적 인식수준의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한국국문 소설은 조선시대에 자체의 문학적 위치가 꺾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문소설 거의 대부분이 창작연대나 창작자 등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설인귀전』 역시 예외가 아니기에, 그 번역연대나 출판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중국의 『설인귀전』은 판본이 매우 많아서 그 원본 해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설인귀는 新·旧『唐書』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실재 인물이다.⁹⁾ 한국의 『삼국사기』에도 설인귀의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¹⁰⁾ 중국 역사상에 실재했던 인물인 설인귀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많은 허구적 요소들이 첨부되어 끊임없이 개작되어왔다.

『話本小說概論』에는 話本에서 사용한 전고(典故)의 상당수가 송나라 시기의 화본과 원나라 시기의 회곡 중에서 따온 것이라고 적혀 있다.¹¹⁾ 명·청 시기에 이르러서 설인귀에 대한 통속문학작품은 더욱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그중 명·청 소설로서 가장 이른 판본으로 『永樂大典』¹²⁾에 실린 『薛仁貴征遼事略』¹³⁾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본으로는 명나라 성화 연간(成化, 1465-1487)에 간행된 唱本 『薛仁貴跨海征遼』, 청나라 시기의 소설 『說唐後傳』과 『薛仁貴征東全傳』 등이 전해지고 있다.

그 전개과정을 간단하게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9) 『舊唐書』 卷八十三, 「列傳」 第三十三: “薛仁貴, 絳州龍門人. 貞觀末, 太宗親征遼東, 仁貴謁將軍張士貴應募, 請從行……”
 - 10)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二十一, 「高句麗本紀」 第九 〈寶藏王〉: “……龍門人薛仁貴著奇服. 大呼陷陣. 所向無敵. 我軍披靡. 大軍乘之. 我軍大潰……”
 - 11) 李夢生, 『薛仁貴征遼事略』 前言, 第17章 「關於講史」: “話本中所用典故, 亦多爲宋元話本和戲曲中所習見者, 如敘述尉遲敬德請求從唐太宗征高麗……元人有‘敬德不伏老’雜劇, 其內容或去此不遠……”(胡士瑩, 『話本小說概論』 재인용.)
 - 12) 解縉 등 편찬, 『永樂大典』, 중국 역사상 규모가 가장 큰 類書, 총 2877권.
 - 13) 『古本小說集成』 중의 「薛仁貴征遼事略」, 上海古籍出版社.



『설인귀전』의 시대적 흐름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괄호 안에 그 창작시대를 밝혀두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필자가 나름대로 흐름의 주류로 생각한, 『설인귀전』의 여러 가지 판본들이다. 위에서 시사하다시피 당나라시기에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인 설인귀의 이야기는 당·송·원·명·청 등 시간의 순차적 흐름과 더불어 문학적으로 가공되고 부연되어 왔다.

문학은 자체의 발전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중국 『설인귀전』의 역사적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바, 오늘날 중국에서도 계속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¹⁴⁾ 이처럼 많은 판본 중에서 한국에서 수용하여 번역된 원본은 무엇이었을까.

그중 가장 확실한 원본으로서 1736년에 간행된 坊刊本 『薛仁貴征東全傳』을 확정할 수 있는데, 이는 1838년에 출판되고 지금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명 『薛家府傳』이라고도 부르는, 『薛仁貴征東全傳』과 그 내용이 일치하며, 大中國圖書公司에서 인쇄하고 발행한 『征東·征西·掃北』 중에 수록된 42회본 「薛仁貴征東」과 내용이 일치하다고 본 선행 연구 성과가 이미 있다.¹⁵⁾

14) 근래에 중국에서 출판된 『설인귀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霞, 『三請薛仁貴』, 王潤生編著, (石家莊: 花山文藝出版社, 1988), 213면.

(清) 無名氏撰, 『薛唐后傳』, (鄭州: 中册古籍出版社, 1990), 497면.

(清) 佚名著, 『薛仁貴征東』, (西安: 三秦出版社, 1994), 497면.

(清) 如蓮居士著, 『薛家將』, (北京: 華夏出版社, 1997), 895면.

侯忠義, 李勤學主編, 『中國古代珍稀本小說續』 5, (沈陽: 春風文藝出版社, 1997), 576면.

佚名撰, 『繪圖薛唐全傳』, (成都: 巴蜀書社, 1998), 783면.

席子杰, 遲双明主編, 『中國古典名著』 第49卷 明清小說, (西寧: 青海人民出版社), 1998, 704면.

齊豫生, 夏于全主編, 『中國古典文學寶庫』 第83集 歷史小說, (延吉: 延邊人民出版社), 1999, 464면.

국내에 알려진 『설인귀전』이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중국소설(『설인귀정동』 42회본)과 같은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소설과 다른 내용이다. 중국소설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은 연세대학교본, 이화여자대학교본 그리고 신활자본이고, 중국소설과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은 국립도서관본, 영남대학교본, 박순호본 그리고 판각본이다……¹⁶⁾

원본이 확실한 중국소설과 한국소설에 대한 비교고찰 작업이 우선 진행해야 할 일차적인 연구과제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의 연구범주를 중국의 42회본 『薛仁貴征東』과 그 번역본인 상, 하편으로 나뉜, 한국의 42회본 『白袍小將 薛仁貴傳』으로, 그리고 번안본 『薛仁貴傳』으로 확정하였다. 『설인귀전』의 번안본은 국립도서관본, 영남대학교본, 박순호본, 그리고 판각본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4종의 이본 가운데 국립도서관과 영남대본은 전체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판각본은 국립도서관본의 3권 47면까지의 내용이며, 박순호본은 국립도서관본의 2권 70면까지와 판각본 30장본의 제21장까지는 같은 내용이나 그 이후의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¹⁷⁾ 이로부터 알 수 있는바 판각본이 국립도서관본과 가장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¹⁸⁾에 실린 경판본을 본고의 연구범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본고에서는 중국 『설인귀정동』의 번역본과 번안본인 『백포소장 설인귀전』과 경판본 『설인귀전』을 위주로, 원본에 대한 번역, 번안 변모양상을 살피는 과정에서 한·중 두 나라의 영웅상에 대한 비교, 개작원인 등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15)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사, 299~300면.

16) 이윤석, 「『설인귀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483면.

17) 위의 책, 484면.

18)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은 두 가지 간행본이 있는데 하나는 김동욱이 편집하고 인문과학연구소에서 간행된 『人文科學資料叢書』 第10集(第1冊)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 이고, 다른 하나는 羅孫書屋에서 간행되고 1975년 12월에 발행된 『景印 古小說板刻本全集』 四(後集)이다. 이 두 가지 간행본에 실린 「설인귀전」을 살펴보면 후자는 60페이지로 되어 있고 전자는 3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전자와 꼭 같고 맨 나중에 가서 “하회를 분석하라”라고 소설의 끝을 맺는다는 점에서 후자의 전편으로 볼 수 있다.

1. 번역본의 誤寫

중국원본 『설인귀정동』과 번역본 『백포장군 설인귀전』, 그리고 변안본 『설인귀전』이 한국의 소설작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번역되고 개작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그 작가가 미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필연코 작품에 반영된 공통의식을 통해 독자층의 심미적 취향을 추정하고, 나아가서 작가층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추정하는, 문학연구의 일반적인 관습을 벗어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고전소설이 배태되고 성장하였던 조선 시대는 유교를 국시로 삼아 한문을 높이 숭상하던 시기였다. 중국이나 조선을 막론하고 모두 유교적인 사회풍토와 거기에 입각해 이루어진 載道論적 문학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유교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일종의 도덕사상이었기 때문에 유학자들은 공자가 怪力亂神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비현실적인 것을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현실생활에서는 무엇보다 도덕을 강조하였다. 유학자들은 진실에는 도덕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이 있다고 보고, 전자를 담은 글을 經이라 하고 후자를 담은 글을 史라고 하면서 양자야말로 참된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설은 도덕적 진실과 역사적 진실 중 어느 한 가지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천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¹⁹⁾

15세기에 민족문자로서 훈민정음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되었으나 중국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은 민족문자를 배격하면서 민족문자로 창작된 문학작품을 천한 글로 천시하기까지 이르렀다. 임진왜란 시기 명나라의 원조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던 조선조는 모화사상이 더욱 굳건한 기반을 닦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문학은 자체의 정당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폄하되면서 진통을 겪게 되었다.

소설이라는 용어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제한성으로 인하여, 또 조선조사회의 민족문학 배격의 사회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한국고전소설은 아주 보잘것

19) 金一烈, 「古典小說時代の 小說觀」, 『古典小說新論』, 새문사, 1991, 60면.

없는 천한 문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소설이 성행할수록 양반 지식인들은 그것이 유교적인 미풍양속의 타락을 조장한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배격하였으며, 여성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소설 애호가들은 소설에 맹목적으로 몰입되었을 뿐, 소설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주장하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소설의 사회적 지위가 두드러지게 향상될 수는 없었다. 일부 지식층이 소설을 직접 창작하기도 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나마 소설의 효용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그것도 대세를 역전시킬만한 것은 못되었다. 조선조의 소설관은 이러한 사회적 풍토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소설관과 매우 거리가 먼 것이었다.²⁰⁾

그리하여 조선시대에 소설은 중국에서 수용된 소설이든지 아니면 자국 내에서 창작된 소설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배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당시의 많은 고전소설의 작가, 창작연대 등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도 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에 대한 배격은 자연 그 작자라든가 번역자 혹은 독자까지도 배격의 대상으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소설 배격논자들은 개인적인 발언을 통해 소설을 배격하기도 했지만 金履素 같은 이는 왕을 움직여서까지 소설을 배격하였다. 대사헌 김이소의 간청으로 正祖는 그 10년(1786년)에 중국소설 수입금지령을 내렸으며 11년과 15년에도 한번씩 내렸다. 그 후 純祖 8년(1808년)에도 금지령이 내려졌다.²¹⁾

물론 당시 이와 같은 극악한 분위기 속에서 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인식, 기능과 효용에 대한 인식, 사회비판적 성격에 대한 인식, 소설적 문체에 대한 인식 등 여러 면으로부터 소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소설을 배격한 양반들은 허구를 허구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실에 대한 歪曲이고 虛誕한 것일 뿐이라고 규탄했지만, 일찍이 김시습에서부터 허구의 가치도 인식되기 시작했다. 李遇駿은 허구를 작품의 내용 및 그 가치와 직접 연결시켜 논의하면서 허구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육미당기」의 작가 徐有英, 「사씨남정기」의 작가 金萬重, 그리고 이외에도 李養吾, 朴趾源, 金邁淳 등과 같은 여러 학자들이 모두 소설의

20) 위의 글, 58면.

21) 위의 글, 63면.

긍정론을 주장하였다.

본고에서 논하는 「설인귀전」의 번역과 번안의 실제작업도 바로 당시의 이러한 시대적 소설관의 영향 하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1.1. 장희명의 誤寫²²⁾

번역본, 번안본 소설을 원본과 비교하여 그 변모양상에 따르는 차이점을 수용자의 입장에서 고려해볼 때 우선 크게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수용자의 주관적인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용자의 실수로 인한 차이점과 수용자의 의도적인 개작시도에 의한 차이점이다.

아래에서는 원본 『설인귀정동』과 번역본 『백포장군 설인귀전』, 양자 간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도합 42회로 되어있는 번역본 『백포장군 설인귀전』의 장희명 중에는 誤寫된 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원 본	번역본
第 四 回: 大王莊仁貴落薄 伶勇士金花贈衣	大王庄仁貴落薄 伶勇士金花贈衣
第 五 回: 老員外忿恨害女 柳大洪設計救妹	老員外忿恨害女 柳大洪設計救妹
第 六 回: 富女逃難賴乳母 窮漢有幸配淑女	富女逃難賴乳母 窮漢有幸配淑女
第 八 回: 樊家莊洪海訴苦 風火山三寇被擒	樊家庄洪海訴苦 風火山三寇被獲
第 十 一 回: 尉遲恭征東爲師 薛仁貴活擒董達	尉遲恭征東爲師 薛仁貴活擒董將
第 十 二 回: 仁貴巧擺龍門陣 太宗愛慕英雄士	仁貴巧擺龍門陣 太宗羨慕英雄士
第 十 三 回: 小將軍獻平遼論 瞞天計太宗過海	小將軍獻平遼論 瞞天計唐君過海
第 十 七 回: 尉遲恭囚解建都 薛仁貴打獵遇師	尉遲恭囚解建都 薛仁貴打獵遇師
第 十 八 回: 太宗被囚鳳凰山 蘇文飛刀斬衆將	太宗被囚鳳凰山 蘇文飛刀斬唐將
第 二 十 一 回: 蓋蘇文敗歸建都 何宗憲冒認功勞	蓋蘇文敗走建都 何宗憲冒認功勞
第 二 十 六 回: 護國公魂游地府 小爵主挂白救駕	護國公魂游天府 小爵主挂白救駕
第 二 十 八 回: 孝子大破飛刀陣 唐王路遇舊仇星	孝子大破飛刀陣 唐王路遇白虎星
第 二 十 九 回: 雪花躍躍養軍山 應夢臣救眞命主	雪花踪跡養軍山 應夢臣救眞命主

22) 본고에서 誤寫라고 함은 단순한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서 원본과 다르게 적혀진 것을 널리 지칭함을 밝히는 바이다.

第三十回: 張環殿上露奸計 攻關薛禮得龍駒	殿上張環露奸計 攻關薛禮得龍駒
第三十一回: 長安城活擒反賊 讓師印威重賢臣	長安城活擒反賊 讓師印威重賢臣
第三十三回: 猩猩膽砧傷唐將 紅慢慢中戟陣亡	猩猩膽砧傷唐將 紅慢慢中戟陣亡
第三十八回: 香山弟子除妖法 唐國元戎擺陣圖	香山弟子除妖法 南國元戎演陣圖
第三十九回: 蘇文誤入龍門陣 仁貴智滅高麗師	蘇文誤入龍門陣 仁貴智破高麗師
第四十一回: 平遼王建造王府 射惡怪誤傷嬰兒	平遼王建造王府 射怪獸射死嬰兒

위에서 볼 수 있다시피 莊·幸·皇·膽·解 등 번째자가 庄·倖·風·胆·解 등 간체자로 바뀐 것 외에, 設이 說로, 擒이 獲으로, 因이 困으로, 威이 威로, 擺가 演으로, 滅가 破로 등 여러 글자가 원본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제18회의 '因'자는 원본의 오타로서 번역본의 '困'자가 맞을 것으로 짐작된다. 글자의 誤寫외에도 단어의 誤寫가 있는데 '董達'가 '董將'으로, '愛慕'가 '羨慕'로, '太宗'이 '唐君'으로, '衆將'이 '唐將'으로, '敗歸'가 '敗走'로, '地府'가 '天府'로, '旧仇星'이 '白虎星'으로, '躍躍'이 '踪跳'로, '唐國'이 '南國'으로, '惡怪'가 '怪獸'로, '誤傷'이 '射死'로 誤寫되어 있다. 이 외에 단어 순위의 誤寫도 있는데 '張環殿上'이 '殿上張環'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誤寫에는 한자 지식수준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비롯된 誤寫와 또 번역자의 의도적인 誤寫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타의적인 원인에 의한 誤寫도 있을 것이다. 무릇 어떤 誤寫라 하든지 간에 42회의 장회수 중에서 誤寫가 있는 장회명 수가 모두 19회로서, 장회수 전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誤寫가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번역자 스스로가 한 번역이 정확한 번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번역자가 誤寫가 많은 번역을 했다는 사실은, 번역자의 한문지식수준의 제한성과 더불어 조선시대 한문수상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생각해볼 때, 번역자가 결코 한문수준이 높은 사대부 집권층의 인물이 아니며, 아울러 이러한 소설을 수용하여 애독한 독자층도 대부분이 일반 서민계층임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1.2. 시구의 誤寫

소설번역 중에서 가장 일차적인 번역작업이고, 또 원본의 장희명을 그대로 수용하는 번역원칙에 입각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장희명 수에 誤寫된 한자가 있다는 점은 번역자의 한문지식수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번역자가 원본 속의 꽤 많은 한시를 번역함에 있어서 생략했다는 사실에서도 공감을 얻게 된다.

원본의 제1회 부분만 보더라도 한시가 세 번 사용되고 있는데, 번역본에서는 모두 생략해버렸다. 첫 번째 한시는 원본의 맨 처음에서 시작되는 칠언시이고, 두 번째 한시는 당태종이 꿈에서 설인귀의 이름을 물어볼 때 설인귀가 대답하는 부분에서 사용된 4구의 칠언시이며, 세 번째 한시는 서무공이 당태종의 꿈을 해석할 때 설인귀가 말한 칠언시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하면서 다시 사용된다. 소설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한시의 생략, 그리고 설인귀의 이름에 대한 한시의 생략은 번역자의 의도적인 생략을 말해주고 있는데, 유의해야 할 비는 한시의 생략으로 번역본의 내용이 불가피하게 변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설인귀의 이름에 관한 한시가 생략됨으로써 서무공이 당태종의 꿈에 대한 해몽 내용이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번역자의 지식수준의 제한성이 작품에 준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한시가 생략되어있는 번역본에서 가끔 의도적으로 번역된 한시도 없지 않아 있는데, 번역된 한시에 誤寫가 많아서 그 번역도 따라서 오역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제12회 부분에서 설인귀가 용문진을 쳤는데, 당태종이 그것을 보면서 더없이 기뻐하고 그 용문진에 대한 7언8구의 한시가 출현하는데 놀랍게도 번역본에 번역되어 있다. 이는 당시 소설을 애독하거나 수용한 소설 향유층의 심미적 욕구를 헤아려 소설 번역자가 번역한 한시일 가능성이 있다. 즉 영웅소설에서 진범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웅소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의 하나로서, 소설 향유층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소설 향유층의 흥미본위의 입장에 입각하여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한 번역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 아래에 용문진 한시의 원본과 번역본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원 본²³⁾

旗旛五彩按三才,
劍戟刀槍四面排,
方天畫戟爲龍角,
拂地黃旗鱗甲開,
數對銀槍作龍尾,
一面金羅龍腹擺
十口大刀爲龍爪,
兩個銀錘當眼開.

번 역 본²⁴⁾

旗旛五彩按三才 하니/괴와괴의오치가스지을안힘 하니
劍戟刀槍을 四面排라/검극과도창을스면에비치흐앗더라
方天畫戟爲龍角 하니/방턴화극이룡에쓸니되니
拂地黃旗鱗甲 期라/쓰에쓸친황기가린갑을과약흐더라
數引銀鎗作龍尾 하니/즈조은창을잇쓸어룡의꼬리를지오미
兩面金羅龍液排라/양면에금라는용익에비치흐니라
十口大刀爲龍爪 하니/천구큰칼이룡의손톱이되니
兩今銀錘作眼開라/두번이제은퇴가눈에열니물지엇더라

8행의 짧은 한시에 모두 9자의 誤寫가 있는데, 거의 한 행에 한 자씩 있는 셈으로 전반 한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따라서 誤寫된 한자에 의해서 번역된 시구의 뜻도 달라짐을 찾아낼 수가 있다. ‘開’가 ‘期’로, ‘對’가 ‘引’으로, ‘腹’이 ‘液’으로, ‘个’가 ‘今’으로 등 심한 誤寫가 있는가 하면, 용문진의 기세를 과장되게 표현하고자 한 번역자의 의식적인 의도 혹은 수용자의 심미적 의식에 따른 誤寫 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十’이 ‘千’으로, ‘一’이 ‘兩’으로 된 誤寫가 그러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소설의 허구성에 대한 긍정론적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이와 같은 수량에 대한 변모양상은 번역자의 의도적인 과장에 따른 번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기타

위에서 주로 장희명의 誤寫와 한시의 誤寫를 살펴보았는데 번역본에는 이외에 기타의 誤寫도 있다. 그것이 수용자의 지식수준의 제한성으로 인한 誤寫이든지 아니면 수용자의 심미적 의식에 따른 誤寫이든지를 떠나서 모두 주관적인 誤寫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소설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23) 中國古典文學名著, 「薛仁貴征東」, 『征東·征西·掃北』, 臺北 大中國圖書公司印行, 民國五十八年 再版, 33면. (논술의 편의를 위해 이 책은 이하 각주에서 ‘원본’으로 줄임.)

24) 「白袍小將 薛仁貴傳」,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6,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1983, 415~416면. (논술의 편의를 위해 이 책은 이하 각주에서 ‘번역본’으로 줄임.)

때, 고전소설은 천시 받고 배격을 당하였고, 또 흥미본위의 소설로서 어설피름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1회 부분에서 설인귀는 설옹의 자식으로 등장되는데 제3회 부분에 가서는 다시 설영의 자식으로 등장된다. 작품의 전반 문맥의 흐름을 따져볼 때 설인귀는 설영과 그의 처 반씨의 소생임을 알 수 있다.

“.....설옹의처반씨나히습십이지나도록비옹의상세업스미설옹이후스느짐을근심
 한디반씨일몽을드느니꿈에별이떠러져품속으로들며영티 하야식사만에흔낫남즈
 를나흐니일흠을인귀라 하다.....”²⁵⁾

“.....설영의부뷔십분환회하나설인귀빅호성으로하강흠은아지못하더라오리지어
 니하야설영부채쌍망하니인귀가스를맞튼후주야무네를의일시.....”²⁶⁾

이처럼 큰 실수는 번역자의 謾寫(원본에서는 설인귀가 시종일관하게 설영과 그의 처 반씨의 소생으로 되어 있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출판자의 소홀함에 의한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지만, 그 실수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이는 소설이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폄하된 지위에 있던 당시의 형편을 엿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수는 이외에도 많은데 예를 들어 목차에 분명히 있는 장희명인 제12회가 본문에서는 생략²⁷⁾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작은 실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 볼 때 모두 그 사회 문화적 배경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해당 시대 특정 문화의 필연적인 소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중 영웅상 비교연구

문학작품에서 개인작과 공동작은 절대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작에도 개인의식이 나타나고, 개인작에도 집단의식이 나타나므로,

25) 번역본, 363면.

26) 번역본, 369면.

27) 번역본, 412면.

개인의식과 집단의식은 상대적인 비증관계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는 원칙론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창작의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공동작과 개인작은 겹쳐질 수 있다.²⁸⁾ 중국소설의 변안작품은 그 변안과정에서 창작자, 전달자, 수용자, 이 삼자가 서로 작용한 공동의 결과적 산물이며, 변안자의 개인의식은 소설 수용계층의 이념이라든가 집단적 심미의식과 상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도적인 개작은 번역본에서도 나타나지만 변안본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설인귀는 당나라 때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로서 변안본 『설인귀전』과 원본 『설인귀정동』 두 작품의 주인공이다. 하나의 똑같은 인물이라 하지만, 소설 주인공으로서의 설인귀는 그가 처한 사회 정치적 환경이 다름에 따라 그 영웅상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부각되었는데 이는 소설 수용자의 이념이라든가 심미적 태도 등에 의해 조성된 서로 다른 결과이다. 변안본의 변모양상을 논함에 있어서 영웅소설이라 할 때 우선 그 영웅상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1. 영웅의 투군과정을 통해 본 영웅상 비교

영웅의 영웅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영웅이 영웅으로 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떠나서 논할 수가 없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설인귀전』의 번역본과 변안본에서 설인귀의 투군의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쥬청왕소제강남애가셔스승을어더무예를익킨지슈습년이니이저드르니룡문현에서턴즈의성지를밧즈와영웅을초모흔다흠을뎃고도라왔거니와가가도쥬흔무예를가지고엇지투군홀싱각을아니히시는고인귀왕현재와리벌호후로가세가빈궁하니무습반전홀거시잇스리요이제도라와스면어더우거흔고쥬청왕속모왕빙빙집에잇거니와가가의이리궁곤홀출은싱각지못흔비라니싱각하니가가집에서쥬일기리기를좁은들머우시시원흔곳지잇스리요쇼제와흔가지로투군하야공업을세워전정음도모함이엇더호뇨인귀왕현재의말이올흐나집에쳐지잇스니니가나가면먹을거시업슬

28) 조동일, 「문학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191면.

거시요또흔 의탁홀스롭이업슬거시닛더나지못흐리로다주청왈가그스이금슬지락
을일우시니가히깃부거니와남아의지고공명취홀을큰일을슴을지라소제가가로더부
러갓치무예를비왔스니공명을흐야도갓치도모홀지라반전은근심치마시고집에잇는
은즈를가져다가안가지지를슴고흐가지로가리라인귀왈현재가이갓치용심흐니흐가
지로가리라……”²⁹⁾

ㄴ.“……인귀왈그디등이웅장흐니국가를도아후세의뉴전흐미올거늘엇지산적이
되리오우리팔인이턴계흐고전일도원결의를효측흐미엇더흐노칠인이디회흐여인귀
를청흐여산치의드러가잔치를비설흐고턴디고계흐미츠레로형제를미지니라인귀왈
요스이드르니턴진정흐실시장스를초모한다흐니엇씨를당흐여발신치못흐고다시
어찌씨를바라이오현재등은경스의올나가성공흐미올홀가흐논이그디등소견은엇더
흐오……”³⁰⁾

ㄱ과 ㄴ은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ㄱ에서 설인귀는 주청의 재삼 되
는 권유에 의해 투군하게 되는 것으로 아주 피동적인 자세를 취한다. 반면
에 ㄴ에서 설인귀는 주동적으로 투군할 뿐만 아니라 또 일곱 사람의 결의형
제들을 권유하여 함께 투군하게 하는 목적, 의식적인 인물로 부각되었다. 즉
번역본에서 설인귀는 주청의 간접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 영웅으
로 되는 길에 오르게 되지만, 변안본에서 설인귀는 투군에 대해서 확실한
자각적 인식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이 주동적으로 투군할 뿐만 아니라 타인
의 투군을 권유하기까지 함으로써 영웅이 되기 위해서 아주 목적, 의식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영웅이 영웅으로 되는 첫걸음에서부터 이렇게 선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바 이는 영웅상 비교의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번역본에서 설인
귀는 장사귀의 거둬 되는 기만술에 자기의 공로를 다 빼앗기면서도 가타부
타 불평이 없는, 거의 기계적인 인물로 되어 있는 반면, 변안본에서는 이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ㄱ.“……인귀탄왈턴히더란흐디간신이농권흐니엇지노적용평정흐리오……”³¹⁾

ㄴ.“……인귀서로니별흐고우분흐여싱각흐되니천신만고흐여나와간격의계육을

29) 번역본, 24면.

30) 변안본, 431면.

31) 변안본, 432면.

볼줄엇지아라쓰리오도로가고져허나뉴시의바라블근코친척의우음을취허거시오잇
고져허나간적이용납지아니흐니진퇴양난이라죽어분을니즈리라.....³²⁾

ㄷ.“.....인귀싱각호미스귀는간신이라.....”³³⁾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장사귀가 간신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를 입는다고 인귀가 한탄한 대목이 여러 곳에 있다. 이는 인귀의 뚜렷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번역본과는 전혀 다른 개작부분이다. 이로부터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의식구조에 대한 대비도 가능하게 된다. 즉 여러 번 속으면서도 참기만 하는 인귀의 형상은 중국인의 대국적 인내심에서 비롯된 인물형상 부각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투군 처음부터 장사귀의 간사함을 보아내고 자주 불평을 하는 인귀의 형상은 한국인의 성급한 기질에서 비롯된 개작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설인귀 영웅은 주동적이고 목적, 의식적이며 성급한 반면에, 중국의 설인귀 영웅은 피동적이고 무목적, 무의식적이며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2.2. 영웅의 병기, 병서 취득과정을 통해 본 영웅상 비교

영웅소설에서 병기, 병서 등 싸움에 필요한 武器들은 영웅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바, 무기의 神力 여하는 영웅이 그 영웅성을 발휘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설인귀정동』과 번안본 『설인귀전』을 비교해 볼 때 설인귀의 영웅상 창조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병기, 병서 등의 취득 과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목에서 시사하듯이 ‘백포’ 역시 병기, 병서 못지않게, 설인귀의 영웅상 부각에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외적요인의 하나이므로, 그것을 얻는 과정도 병기, 병서를 얻는 과정과 함께 논하였다. 「군담소설과 ‘설인귀전」³⁴⁾에서도 병기, 병서의 취득과정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보다 더 자세한 논술을 전개하려는 시도에서, 그리고 그 분석 각도가 조금 다름을

32) 번안본, 432면.

33) 번안본, 434면.

34) 서대석, 「군담소설과 ‘설인귀전」,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사, 1990.

미리 밝힌다.

먼저 원본 『설인귀정동』의 전포, 병기, 병서 취득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ㄱ. “……周靑道：「小弟爲教師數年，積到一箱衣服，五色俱全，待我拿出來，凭哥哥揀一付喜穿的；拿去更換。」說罷，拿出箱子，打開來與仁貴一看；果然五色俱全，就揀一付白顏色，拿出更換了，頭上白綾印花抹額，身穿白綾戰襖，脚踏馬靴；正所謂佛要金裝，人要衣裝……”³⁵⁾

ㄴ. “……仁貴抬頭一看，見戟尖插在泥里，不見戟尖，惟有戟干子打柱正樑，有茶杯粗大，長一丈四尺，通是鐵打的；就叫庄客，你們端正柱子過來，待我託起正樑，換將下來；庄客連忙用柱子豫備。仁貴託起正樑，庄客四人，盡力將戟換下，仁貴放下正樑，就拿起方天戟來；便說：「這戟不輕不重，却正好使……」”³⁶⁾

ㄷ. “……娘娘道：「這五件宝物，是鞭袍弓箭天書，此鞭名白虎鞭；若遇東遼元帥，青紅鬚，乃是你放的青龍，用這條白虎鞭打他，此袍名水火袍；若逢水火，即罩此袍，能全姓名，此弓乃震天弓；並五枝穿雲箭，歸於你挂身邊，這青龍善用九口飛刀，你將此弓箭射他，就能破他飛刀，把手一招，原箭歸於你手。此一本書，名曰无字天書，不可被人看見，凡有疑難之事，即排香案，拜告天書，上露字跡，就知明白，此五件异宝，你拿到高麗，就能平服，你去罷！」薛禮大悅，拜別娘娘……”³⁷⁾

다음 번안본 『설인귀전』을 보기로 한다.

ㄴ. “……두시숨어맞가는거슬보더니홀년디풍이이러나며턴지아득하며무어시신회써리지니소리벽역갓탄지라인귀고히역여치를드러소를모니그쇠셧고가지아니하거늘의혹하여보니그써리지던거시화하여큰짐성이되여다라들거늘인귀급히치니그짐성이두드리부러져왔가온디박히고몸은히하여일진청풍이되여다라나거늘인귀즈시보니그다리의글지쓰여시되이밋타돌함이이시니설인귀기탁이라하엿거늘인귀의혹하여파고보니과연석함이잇거늘열고보니은갑은투고와방턴극이드러거늘석함을도로닷고밋출다간후소를잇슬고도라오니……”³⁸⁾

ㄷ. “……호련산곡동의혹운이즈옥하며천지아득하더니닉설갓튼말이소리지르고다라들거늘인귀보니말빛치킵설갓고갈기와총은청스갓고눈은번기갓고소리우레갓거늘인귀벗들고져하더니문득구름이거드며호노인이동으로안장과굴네를들니고와니로디장군이군장을근심하미천니농총마를가져왔노니갑슬쥬고소리인귀황망이지

35) 원본, 17면

36) 원본, 21면

37) 원본, 30~31면

38) 번안본, 431~432면

비알노장이준미를지시하시니감스하오나가산이빈곤호와헐기리업나니다노인왈트
고져호거든가지라엇지갑슬의논호리오호고문득간디업거늘인귀공중을향하여무슈
호례호고말을넋쓸고도라오니……”³⁹⁾

ㅂ. “……인귀왈큰광뚜리를줄를네귀의미고방울을다라그소리를좃추거헿허라호
고단검을들고디협압헿가광뚜리의안즈며줄을푸니점점드러가던이닷는고지닛거늘
노려두로안지던이호급기홍광이찰난호며들문의식이시되이문열스삼은설인귀라호
엿거늘㉑. 1문을열고드러가보니붉은농관흰범이쓰화농은승승호고범은곤호거늘인
귀칼를드러놓을치니원편다리맛고다라나고범은간디업스니격농은합스문이오빅호
는설인귀를옹하미라……인귀점점드러가미종경소리들니고던디병낭호거늘스면도
라보니오식치각이반공의소삿거늘올나보니석함이노헿거늘㉒. 2열고보니취세권이
넋는지라피고보니던문디리와오형음양도술척이라더회호여칙을품의감초고경기
를구경하더니호련일위선네금합옥호를들고오거늘인귀늘나피코져호더니선네왈속
직이엇지왔노인귀황망이스죄왈던즈을뵈서요동을치러가더니황명오로지힐의왓
노니다선네왈안심허라호고함과병을노코간디업거늘경이호여보니쥬찬이라……”⁴⁰⁾

그 줄거리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ㄱ. 설인귀는 주창의 의복상자에서 白綾印花, 白綾戰襖, 馬靴 등을 골라
가진다.

ㄴ. 번가장에서 설인귀는 변홍해를 도와 풍화산 도적을 물리칠 것을 약속
하고 가진 병기가 바로 方天戟이다.

ㄷ. 굴속에서 설인귀는 娘娘을 만나 娘娘에게서 五宝를 가진다.

ㄹ. 설인귀는 밭을 갈다가 큰 짐승과 싸워 이기고 땅속의 석함에서 은갑,
은투구, 방천극을 얻는다.

ㅁ. 굴속에서 설인귀는 한 노인을 만나 그에게서 천리용총마를 얻는다.

ㅂ. 설인귀는 굴속에서 돌문을 열고 들어가 석함에서 천문지리, 음양오행,
도술에 관한 책세권을 얻는다.

ㄱ에서 보다시피 인귀는 주창의 권유로 의복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피동
적인 취득과정이다. ㄴ에서 인귀가 땅에 박힌 방천극을 뽑는 전반 과정에서
그 방천극은 한나라 시기 변태가 사용하던 화극이라는 한마디의 말로써만이

39) 번안본, 432면.

40) 번안본, 434면.

신비적인 색채가 부여되었을 뿐인데 이는 인귀의 힘이 세다는, 힘에 대한 긍정적 과시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ㄷ에서 자칫 하면 娘娘의 출현으로 신비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사실 그 신비적 색채는 신비한 五宝가 가지는 자체의 신비성에 불과할 뿐으로, 인귀의 주관적 의지와는 거리가 먼 피동적인 취득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원본에서는 인귀가 의복, 병기, 병서 등을 얻는 과정이 피동적인 취득과정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변안본에서는 전혀 다른 변모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간의 문학관습의 전통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울러 그 변모양상을 통해 한국인의 심미적 취향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다.

ㄷ에서 인귀는 투근할 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외삼촌 당명귀를 찾아가는데 악처 두씨가 인귀를 모해할 생각으로 사나운 짐승이 출몰하는 곳에 가서 발을 갈게 한다. 발을 가는 도중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인귀는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싸워 싸움에서 이기고, 부러진 짐승의 다리에 적힌 대로 땅을 파고 그 밑에 있는 석함에서 은감, 은투구, 방천극을 얻는다. 이 과정은 원본의 ㄱ과 전혀 다른바, ㄱ이 극히 피동적인, 인귀 자신의 의지와는 별반 관련이 없는 취득과정이라고 한다면, 변안본 ㄷ은 아주 주동적인, 인귀 자신의 뚜렷한 목적, 의식적인 행동이고 또 그의 주관적인 노력의 결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ㄴ에서 자칫 하면 용총마를 얻는 과정이 인귀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노인이 인귀의 마음을 기쁘게 본 이야기로서, 인귀의 덕성의 표현이 깔린 목적, 의식적인 취득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노인이 천리용총마를 인귀에게 팔겠다고 하였을 때 인귀는 조금의 욕심도 없이, 자신은 가난하므로 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인귀의 겸손한 태도에 노인이 용총마를 타고 싶으면 타라고 주고 간다. 이 부분에서 인귀의 고상한 덕성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금전보다 덕성을 더욱 중시하는 당시 서민들의 정신적 추구 및 아름다운 인정세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ㄹ에서 인귀는 청룡으로 변신한 합소문과 싸우는데 싸움에 이기고 계속

동굴을 걸어들어 가다가 석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천문지리, 음양오행, 도술에 관한 책 세 권을 얻는다. 다시 말하여 이 세 권의 천서 취득과정 역시 인귀의 노력의 결실로서 ㄹ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병기, 병서 취득과정도 인귀의 투군과정과 마찬가지로 그 번역본과 번안본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본에서는 피동적인, 영웅의 주관의지와 관련이 없는, 단일한 의식의 취득과정이라 할 때, 번안본에서는 주동적인, 영웅의 주관적인 의지에 의한 목적, 의식적인 다양한 의식의 취득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영웅상도 서로 다른 변모양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소설 수용자가 처한 사회 정치적 환경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비롯된, 서로 다른 수용자의 이념 혹은 심미적 취향에서 비롯된 산물인 것이다.

이로부터 설인귀의 영웅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도표를 작성해볼 수가 있다.

한국	주동성	목적성	의식적	현실성	급함	武	신비성의 약화
중국	피동성	무목적성	무의식적	비현실성	느림	文武	신비성의 강조

3. 개작에 대한 一考

3.1. 소설의 흥미요소와 민족적 자존심의 충돌

『설인귀전』은 중국소설로서 당나라가 고구려와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실제 있었던 역사사실을 왜곡시켜 창작하였다. 역사상 고구려는 당나라의 정벌을 격퇴시켰는데 소설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 본위로 엮어졌다. 한국의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킨 『설인귀전』을 한국에서 받아들여 번역하고 번안하였고, 또 많은 이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설의 흥미요소에 의해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설의 흥미요소와 민족적 자존심의 갈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소설에는 고구려가 우리나라라는 역사적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 또한 들어 있다. 즉, 합소문이 설인귀에게 죽는 대목이다. 이것은 소설 전체로서의 흥미와 민족적 자존심 사이의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을 작자는 합소문이 당태종을 폄박하는 대목이나 또는 합소문이 어쩔 수 없이 설인귀에게 패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해소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합소문이 당나라를 칠 때 당나라를 치는 명분으로 당 태종의 부도덕함이라든가, 또 당 태종이 합소문에게 사로잡혀 용포 자락을 뜯어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항복문서를 쓰는 대목 등에서 합소문의 능력이 당나라 천자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중국 천자를 농락하는 통쾌함을 맛보게 한다. 그리고 합소문과 설인귀의 싸움에서 순전히 두 사람이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싸울 때는 합소문의 활에 설인귀가 팔을 맞고 도망간다. 그러나 설인귀는 선녀의 도움을 받아 결국 합소문을 죽이게 된다.

작자의 이와 같은 이야기 구성은 결국 독자들에게는 중국 천자를 혼내는 뛰어난 합소문의 능력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고, 또 설인귀가 주인공인 전체이야기의 흥미로운 내용에 빠져들게 하여 중국사람인 주인공이 고구려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조선조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설정이 꾸며낸 이야기의 즐거움과 아울러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 즐거움을 함께 맛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⁴¹⁾

이와 같이 이윤석은 번역본과 변안본을 통괄해서 논하였는데 사실 그 번역과 변안양상을 대비해 볼 때 결코 함께 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합소문이 설인귀에 의해 죽는 대목만 보더라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仁貴道:「非本師要你性命,不肯放鬆,只是你自己不是,不該下戰書到中原,得罪天子,天子恨你切齒,記在心,包在本師身上,要你這顆首級,我不得不取汝性命了!」蓋蘇文听了這話,心中懊悔不及,長歎一聲,罷了!罷了!此乃天數判定,該應傷於你之手了,与你這頭罷,遂把赤銅刀,望頸項下一切,頭落在水,仁貴把戟挑起,挂於腰中,見蘇文頸上呼一道風聲送起,現出一青龍,望着仁貴,把眼一閉,頭一答,竟望西方而去.鮮血一冒,身子落在水底……”⁴²⁾

“……설인귀왈니곳터여네의성명을살히코져호미아나라네중원전서를보닐쎄에스설만호미심호고로턴즈진호사너의슈급을취하라호시니니임이슈명호얏는

41) 이윤석, 『설인귀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489면.

42) 원본, 104면.

지라엿지사사로이요디 흐리오합소문이말을듯고일성장탄왓이는턴쉬니도망키어려
온지라엿지네손에옥을바드리오 흐고격강도를들어칼집에쫓고수둔법을흐아흔적업
시다라나이라.....⁴³⁾

“.....인쿠크게불너왓노적은닷지말나흐고활을다러쏘니시위를옹흐여합소문이말
괴떠러지거늘다라드러머리를버혀들고격진을함몰흐고도라와태종귀슈금을드린디
.....”⁴⁴⁾

원본, 번역본, 변안본은 각각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본에서는 합소문이 적동도로 자결하여 목이 물에 떨어지고, 그 끊어진 자리로부터 바람소리와 함께 청용 한 마리가 서방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표현되어 신비주의 색채가 깔려 있다. 번역본에서는 합소문의 죽음이 직접 묘사되지 않고 수둔법을 취하여 달아나는 것으로 묘사되어, 합소문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서술을 회피하려는 번역자의 의도가 은근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변안본에서는 아무런 수식과 숨김도 없이 합소문의 머리가 설인귀에 의해서 베여진다고 적혀 있다. 원본과의 대비를 통해서 삼자의 차이점을 보아낼 수 있다. 번역본에서 합소문의 죽음을 회피하려는 번역자의 민족적 자존심을 엿볼 수 있는데 반해, 변안본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 즉 합소문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도 보아낼 수가 있다. 이는 앞장에서 도출해 낸 한국과 중국의 설인귀형상의 대비론에도 부합되는 것으로서 중국의 설인귀형상이 신비주의 색채를 진하게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설인귀형상은 그 신비주의 색채가 한결 감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한국소설의 외가의식과 악인모해형 특성

변안본의 의도적인 개작부분을 밝혀 가면 소설의 한국적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의도적인 개작의 실례로 인물체계의 변화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다.

43) 번역본, 63면.

44) 변안본, 440면.

원본과 변안본의 인물체계를 대비해 볼 때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변안본에서는 인귀의 아버지 설경부터 등장하고 조부 설항, 백부 설웅 등 인물은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변안본에서 설경이 전처가 죽자 후처를 맞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본과 서로 다른 개작된 내용이고, 원본에서 등장하는 인귀의 처 누씨의 유모는 변안본에서 배제되고 대신 이웃집 노파가 등장한다. 이처럼 원본과 변안본의 인물체계는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바는 바로 외삼촌 당명기와 그의 처 두씨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변안본에서는 당명기와 두씨 이 두 인물이 새롭게 각색되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엮여지고 있다. 특히 두씨의 역할은 자못 중요한 것으로 인귀가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 준다. 인귀가 투군하기 위해 외삼촌댁으로 찾아가는데 두씨는 나쁜 마음을 품고 인귀더러 발을 갈라고 한다. 이는 인귀가 병기, 병서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된다. 두씨가 인귀더러 발을 갈라 하였기에 인귀는 발을 갈리 가게 되고 이에 밭에서 짐승을 만나게 되며 또 아울러 석함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병기, 병서 등 영웅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들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로부터 한국소설의 외가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한국영웅소설의 서사구조 특징의 하나인 악인모해형 이야기를 답습했음도 알 수가 있다. 惡인이 있음으로 하여 善人の 선량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것이다. 이처럼 영웅소설에서 악인의 설정은 영웅의 영웅성을 부각함에 있어서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원본에 전혀 없는 악처 두씨에 대한 설정은 변안본에서 새롭게 개작된, 의도적인 개작부분으로서 이는 한국 영웅소설의 외가의식과 악인모해형의 서사적 구조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변안본소설이 그 창작시대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번역본보다 늦은 이후시기의 산물임을 보아낼 수가 있다.

변안본의 창작시대는 또 변안본에서 나타나는 여성지위의 향상을 통하여 변안본이 번역본보다 늦은 시기의 창작물임을 알 수가 있다. 여성지위의 향상은 아래의 대목에서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인귀왈낭즈야니나간후에만일아들을낳거든정산이라호고딸을낳거든낭즈의 마음더로일흠을지으라…….”⁴⁵⁾

“……인귀왈니헛스는지축이업스니만일남이나거든평산이라호고녀이나거든금년이라호소서…….”⁴⁶⁾

보다시피 번역본에서 인귀는 아들을 낳으면 정산으로 이름 지을 것을 부탁하고, 딸을 낳으면 누씨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는 인귀가 딸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름 지어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 우위, 여성 하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변안본에서는 이와 달리 만일 남자애를 낳으면 평산이라 이름 짓고, 여자애를 낳으면 금년이라 이름 지으라고 인귀가 누씨에게 부탁한다. 이는 남녀평등의 표현으로서 번역본과 달리 여성지위의 향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변안본은 번역본보다 시기적으로 좀 더 늦게 창작된 소설로 추정할 수 있다. 변안본에서 나타나는 여성지위의 변화는 조선조시대 여성 영웅소설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설인귀전』의 속편인 『설정산실기』나 『변이화정서전』 등이 한국여걸소설에 준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논문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다.⁴⁷⁾

변안본에서 한국영웅소설의 특징으로 외가의식과 악인모해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외에, 또 주목해야 할 바가 있다. 바로 영웅의 영웅성 부각에서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다루어져 온 영웅 부모의 죽음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영웅소설에서 영웅이 영웅으로 되자면 영웅이 어릴 적에 조실부모하지 않으면 영웅이 영웅으로 되기 전에 영웅의 부모는 거의 모두 갑자기 병들어 죽거나 큰 봉변을 당하게 된다. 이는 한국인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한국 고유의 전통 의식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유교의 윤리 가운데서도 효를 으뜸으로 신봉하던 조선조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 볼 때, 부모의 조난은 영웅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이 된다는 사실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는 또한 문학창작수법의 한 가지 기교로

45) 번역본, 386면.

46) 변안본, 432면.

47)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63집, 1974.

서 영웅의 영웅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ㄱ. “……당시양던통곡알하늘이우리모즈를죽이려흐시니엇지살이오흐고불의뿔
여드니인귀총망똥밧쳐붓드지못흐여뉘는양을보고통곡흐며……”⁴⁸⁾

ㄴ. “……츠시뉴분이도라가모친을보고오날쓰흔일을고흐니정시똥고누쉬여루흐
니분이그연고를무른디정시왈을지공은네부친이라날과니별헐제너를비엿더니이제
니십년이라오날그성명을드르니하날이도으시미로다분이늘나문왈무슴표적이잇는
니잇가정시뉘절편을가로채왈저치가본디즈웅이니흐나흔네부친이가지고흐나흔날
을맞겨후일표를삼게하엿는니라흐고후당의드러가목미여죽으니북니이날밤의어미
시신을집뒤희안장흐고집을불지르고……”⁴⁹⁾

ㄱ에서 인귀의 어머니 당씨는 낙루하다가 불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ㄴ에서 뉴지분의 어머니 정씨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의 전후시말을 아들에게 모두 얘기한 뒤 후당에 들어가 목을 매어 자살한다. 이는 번역본에서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작자의 의도적인 개작에 의한 것이다. 변안본에서 이 두 장면은 억지감이 많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영웅의 영웅성을 위하여 부모의 존재가 폄하되거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야 한다는 당시의 시대적 소설관을 감안해 볼 때, 이 역시 한국영웅소설의 상투적인 표현수단의 하나로서 그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3.3. 한국 전통문학과와의 관련양상연구

위에서 이미 변안본소설이 갖고 있는 조선조 영웅소설의 보편적 특징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문학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학 자체의 내적 발전법칙에 의해서 그 문학적 흐름을 이어오게 된다. 변안본에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학과와의 관련양상 즉 변안본소설이 어떻게 전통문학의 유산을 계승해 왔는가를 살피는 작업도 문학연구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48) 변안본, 429면.

49) 변안본, 435면.

우선, 한국 전통설화의 계승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영웅의 병기, 병서 취득과정을 통해 본 영웅상 비교’ 부분에서 밑줄 그은 구절 가운데 ㄹ부분의 “이밧티돌함이이시니설인귀기탁이라”㉑구절과 ㄴ부분의 “돌문의식이시되이문열사람은설인귀라호엿거늘”㉒.1구절 그리고 “석함이 노혔거늘”㉒.2 이 세 구절을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㉑과 ㉒.1은 설인귀의 영웅상 부각에 있어서 설인귀는 하늘이 접지한 영웅이라는, 설인귀의 절대적 영웅성이 강조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원본에 없는, 한국 소설 수용자의 심미적 취향에 의한, 한국 전래의 문학적 관습에서 비롯된 전통적 의식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전래의 설화 문학의 전통을 이어온 문학적 표현의 한 부분이다.

한국의 고전설화문학에서는 건국영웅의 절대적 영웅성의 강조를 위해서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고구려의 주몽설화를 들 수 있다. 주몽이 졸본으로 가면서 칼을 두 동강 내어 아들을 찾는 징표로 삼는데, 그 칼 반쪽을 ‘일곱 모가 난 돌 위 소나무 아래’에 감추어두고 떠난다. 후에 우리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는데 그 ‘일곱 모가 난 돌 위 소나무 아래’란 바로 집의 소나무 기둥의 일곱 모가 난 주춧돌 밑을 가리키는 것이다.

㉑과 ㉒.2에서는 모두 돌 밑의 석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본에 없는 개작물로서 주몽설화의 ‘일곱 모가 난 돌 위 소나무 아래’의 변이된 수용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꼭 찾게 되고, 또 꼭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결과론적 의식이 뚜렷이 담긴 돌 밑의 석함은 조선조 소설 수용자가 민족문학의 전통적 유산을 이어 받은, 민족의 집단적 심미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하늘에 의해서 이미 선택된 영웅이 바로 설인귀라는, 설인귀의 절대적 영웅성의 강조를 위해서 사용된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전래의 민족문학이 지니고 있던 설화적 특성을 계승한 조선조 소설 수용자의 심미의식을 엿볼 수 있다.

설화적 요소의 전통문학의 계승양상은 변안본에서 유원외가 딸이 인귀에게 속적삼을 주어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집에서 내쫓는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본에서는 유원외가 딸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의 피에 넘

어가 딸이 정말로 우물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아는 것으로 유원외의 노여움이 사라지고 드디어 집안의 풍파가 가라앉는다.

변안본의 이야기 대목은 다음과 같다.

“.....공이너노월규등쳐지이러듯망칙흐 흥실을흐니너엇지용납흐리오털눈이동
흐나너를독일거시로되참아못흐 여너치느니인귀를다리고멀이가고너눈의피지말나
.....”⁵⁰⁾

여기서 ‘인귀를다리고멀이가’라는 처벌은 고전설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설화에서 부명을 어기었다고 공주를 궁궐에서 내쫓았고, 「서동과 선화공주」 설화에서도 거리에서 불리는 노래에 의해 선화공주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 하여 내쫓는다. 결과적으로 따져볼 때, 비록 집에서는 쫓겨났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는 자주적인 사랑으로 승화되는 하나의 계기로 되는 것이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집에서 쫓아내는 것을 가장 큰 벌칙으로 간주하였던, 한국인의 가족중심의 봉건적 윤리사상의 표현으로, 한국인의 민족의식 및 민족적 정서의 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문학의 내재적 발전법칙에 의한 한국적 민족정서의 계승양상은 또 설인귀가 투군 하기 전의 신분적 차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원본에서 설인귀는 투군 하기 전에 날마다 활로 기러기를 쏘아 장에 가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냥꾼 신분이었다. 그러나 변안본에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파는 나무꾼 신분이었다. 신분의 변모양상은 민족의 심미의식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사냥꾼보다 나무꾼이 德의 체현자로서, 한국인의 민족적 정서에 더 부합되는, 한국인이 선호하는 신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대성전」과 같은 영웅소설에서도 영웅이 나무꾼으로 등장한다.

조선조사회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다시피 유교를 국시로 삼아 유교를 크게 숭상했던 시대였다. 유교적 윤리관이 변안본 소설에 준 영향의 간단한 실례로 후처의 자식으로 된 설인귀의 신분변화를 예로 들 수가 있다.

50) 변안본, 430면.

원본에서는 설영의 처 반씨가 53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다가 하루는 별이 품에 드는 꿈을 꿈으로써 설인귀를 잉태한다. 그러나 변안본에서는 설영의 전처 뉴씨가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고 갑자기 병을 얻어 죽게 되고 설영이 재취하여 얻은 후처 당씨가 인차 자식을 낳는데 그가 바로 설인귀라고 하여, 설인귀가 후처의 자식으로 되어 있다.

“……부인뉴시로금슬니흠연흔나눗도록일점혈뉘이업스니부비미양한탄흔더라뉴시호련득병흔여죽으미당시를지취흔니용되절세흔지라오리지아니흔여잉타하여…….”⁵¹⁾

이는 유교의 ‘칠거지악’ 관념의 반영으로서 뉴씨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칠거지악’ 중 대죄를 범하였는바, 자연히 소설에서 죽는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당씨는 시집오자마자 자식을 낳는 것으로 뉴씨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결 론

지금까지 중국소설의 원본 『설인귀정동』과 한국소설의 번역본 『백포소장 설인귀전』, 그리고 변안본 『설인귀전』의 서로 다른 변모양상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번역본과 변안본을 원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소설작품이 당시 사회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산출된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고, 변안본의 의도적인 개작부분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소설의 차이점을 찾아보게 되었으며, 아울러 한국 전통문학과와의 관련양상을 추출하게 되었다. 번역본의 오사와 변안본의 의도적인 개작을 통하여 변안본 창작의 시대가 번역본보다 늦은 시기였음을 추정하게 되었고, 변안본에서 원본과 다른 의도적인 개작부분을 통하여 여성형상의 지위향상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영웅 소설의 출현을 암시해준다. 소설의 흥미요소와 민족적 자존심의 충동을 대

51) 변안본, 429면.

비하는 과정에서 번역본소설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고려한 것과 달리, 변안본 소설에서는 소설의 흥미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 소설의 인물형상특징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전통적인 심미적 취향과 의식을 엿보게 되었다. 영웅의 투군과정과 병기, 병서 취득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피동적이고 무목적, 무의식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성격이 느린 중국식 영웅상에 비하여, 한국식 영웅상은 이와 달리 주동적이고 목적, 의식적이며 현실적이고 성격이 급한 인물형상임을 추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변안본의 의도적인 개작부분에서 외가 의식과 악인모해형 특성을 찾아보게 되었고, 전통설화의 계승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본고의 작업은 한·중 두 나라의 번역, 변안소설의 비교연구에서 내디딘 첫 발자국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소설 자체의 보편적 특징을 종합해 낼 수 있는 일반론을 추출해 내는 데 그 궁극적인 연구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